

길 모퉁이에 서서

송 선 오 간호사 (부천 성가 병원 호스피스 병동)

지 금까지 아프다는 소리없이 건강하게 살아온 이씨는 42세의 여자 환자였다. 그러나 2년전 아랫배가 아파 검사 결과 Krukenberg tumor 진단하에 항암요법을 받았다. 남다른 사랑으로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부인 간호에 열중하였다. 그동안 벌은 돈으로 2년 가량을 항암치료로 인한 병원비로 나가고 아들 전세값 마저 빼어 월세방으로 옮기고 새로 나온 항암제를 썼다. 그 항암제를 맞은 후 배는 부드러워 졌고 구토증상은 감소되었지만 1회 비용이 300만원 가량 되었다.

의사는 한번 더 맞을 것을 권유했지만 남편은 더 이상 돈을 구할 곳도 없고 직장도 없어 고민했다. 부인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돈과 간호를 다 바쳤지만 남은 것은 여전히 병든 상태였고 남편은 이제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산사람도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며 모든 검사와 항암요법을 거절하였다. 당장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이곳 저곳을 다녔고 친정엄마가 간호하면서 항암요법을 중단하고 본 병동으로 이실왔다. 장유착이 있어 튜브를 통해 위관 영양을 공급받고 있었다. 의식은 명료하지만 환자는 완전히 우울 상태로 말이 전혀없고

파티션과 커튼으로 꼭꼭 가리며 외부사람과 사절한 것처럼 했다. 회진시 물어도 대답이 없고 눈을 감고 있다가 인기척이 나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눈을 떴다가 살짝 감곤했다. 남편 역시 고민과 우울이 가득찬 얼굴로 오곤했다.

친정 엄마는 뭔가 먹여보고 싶어 입으로 먹으면 안되느냐고 계속해서 묻곤했다. 장유착이 있어 내려가지 못하고 구토를 동반한다고 설명했더니 보릿물이라도 스며들게 하기 위해 양치질을 보릿물로 횡구곤 했다.

수녀님과 남편의 계속적인 만남과 상담으로 인해 남편은 조금이나마 쩡그린 얼굴에서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밝아졌다. 친정 어머니는 “걸어서 못나가겠지. 저렇게 아무것도 안 먹은



지 3개월이 되었다 못살겠지,” 하며 불안해 했고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다가 빨간 눈을 씻고 병실로 들어가 딸의 손발을 닦아주곤 했다. “옛날에 안과병원에 간적이 있는데 돈을 잃으면 100을 잃고 친구를 잃으면 1,000원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10,000원을 잃는다는 글이 있는데 건강이 최고여, 애는 감기약 한번 안먹었는데 배속에 흑이 생겨서 이러구만” 하며 눈물이 글썽글썽하다. “할머니 힘들고 속상하죠, 지금 제일 소중한 것은 환자분이 가장 편안하고 통증없이 가족들 걱정없이 다하는 그날까지 안위감을 취할 수 있도록 할머니와 제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애가 엄마 손잡고 나가고 싶다고 하고, 엄마랑 시골가서 밥해먹고 싶다고 하는구먼, 나갈 수 있을까, 못나가, 아무것도 못먹는데 무슨 기력이 있어.” 하며 딸의 고통을 친정엄마가 대신하는 듯 마음 아파하고 있다.

우리는 환자에게 L-tube로 인해 목이 불편하여 많은 말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잡아주고 back massage를 하고 환자의 배를 어루만져주며 조금씩 접근을 하였다.

“내가 오늘 출근을 하면서 아주머니가 오늘 하루도 통증없이 편안하시기를 바라다며 기도했다, 이씨의 웃는 모습이 보고싶다, 남편에게 고맙다든가 사랑한다든가 말을 했는지 안했다면 지금이라도 해주라고 권유했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묻곤 했다.” 처음엔 아무대답이나 표정의 반응도 없이 굳은 얼굴이었다.

남편에게도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그동안 못했던 말을 하고 행복했던 지난날을 생각하면

서 얘기를 들려주라고 말했다.

며칠이 지난 후 환자의 웃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 파티션 사이에 굳게 닫힌 커튼도 견혀져 있었다. 너무도 감격스러웠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었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아주머니의 미소가 이방을 형광등처럼 밝게 해주는군요, 아주머니의 웃음이 할머니와 남편에게는 2배 3배의 웃음으로 선사하는군요.” 그렇게 어려웠던 죽음을 수용하며 몇일을 보냈다. 어느날 아침 인계를 받는데 어제와 다르게 condition이 떨어졌다고 한다. 가보니 의식이 흐려져 있었다. 오늘 넘기기가 힘들다는 느낌이 들었고 환자의 얼굴은 미소를 간직한 얼굴처럼 뽀얗고 호흡곤란이나 통증도 없이 편안해 보였다. 다음 근무번에게 인계를 주면서 임종방으로 옮길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설명했다고 말을 하는데 마음이 무거웠다. 다음날 출근을 하니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죽음이란 자연적이고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싶은 단어이다. 그러나 삶의 한 과정이므로 받아들이고 준비하여 정말 편안하고 가치있는 마무리를 하여야 하겠다.

대부분의 환자 및 보호자들이 저희 병동에서 임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삶의 마지막까지 고통없이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보호자는 최선을 다해 잘 보냈다는 마음을 갖고 “정말 천국에 갔을 것이다. 편안하게 잘 갔다.”라고 보호자가 느끼고 나중에 인사하러 왔을 때 비로소 호스피스를 인식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